

계룡 이 작



HOPE

DREAM

- 03 Theme Story**
새로운 생각, 빠른 움직임으로 업계를 선도하라
- 07 신년사**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 신년사
- 09 FOCUS**
계룡그룹 제47회 창립기념식
- 11 FOCUS**
계룡그룹 사회 공헌 활동
- 15 FOCUS**
신입사원 워크숍 & 사령장 수여식
- 19 FOCUS**
2016 계룡 자전거 라이딩
- 20 FOCUS**
세종 2-4 여반아트리움 더 센트럴
- 21 건설현장의 미학**
행정중심복합도시 2-2 생활권 조성공사
- 25 우리가 만들었어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경기장
- 29 현장리포트**
인천국제공항 토목시설 유지관리
- 33 생활이 있는 공간**
영국 밀레니엄 다리

- 35 우리는 가족**
계룡산업 덕유산(하남방향) 휴게소
전상찬 관리과장 가족
- 39 멘토-멘티가 간다**
멘티 김용규 사원, 멘토 손지완 과장을 만나다
- 43 휴게소로 간다**
평창(강릉방향) 휴게소
- 47 패션아일랜드**
마른 체형을 풍성하게, 체형 보정 코디 방법
- 51 PHOTO TOON**
건조한 겨울철 사무실 수분충전 하기
- 53 KYERYONG NEWS**
- 55 내 사진 어때요**

발행처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계룡건설산업(주) 홍보실
기획 홍보실 070.4470.7176
인쇄 유상인씨
편집 디자인 월간 토마토 042.320.7151

© 본지는 한국 도서잡지윤리위원회
잡지윤리 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인다

FIRST MOVER STRATEGY

퍼스트 무버 전략

중앙일보는 2014년부터 '퍼스트펭귄'이란 주제로 새로운 시장에 최초로 뛰어든 기업을 취재했다. 퍼스트펭귄은 최초로 바다에 뛰어든 펭귄을 부르는 말이며, 영어권에서는 용감하게 도전하는 선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보스턴컨설팅그룹과 해당 퍼스트펭귄이 가진 공통 속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퍼스트펭귄은 고객 만족, 개척자 정신, 끝없는 실험, 과감한 실행, 창조적 파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참고자료 LG경제연구원 <First Mover 전략의 핵심은 역동성>



먼저 움직이고 가장 빨리 달린다

과거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기존 시장에서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으로 강자를 모방하고 추격했다. 그 결과 반도체,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사업 대부분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퍼스트 무버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 또는 기업을 일컫는 말로,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선도자를 가리킨다. 이제 많은 기업이 시장의 선도자가 되었고 패스트 팔로워 전략보다는 퍼스트 무버 전략을 실천해야 할 때다.

계룡건설은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토목과 건축 관련 전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미 토목·건축 분야 시장에서 많은 기업이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계룡건설은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비록 다른 기업보다 먼저 건설 산업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계룡만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국내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우뚝 설 수 있었다.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본 퍼스트 무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최초로 제품을 출시해 시장을 개척한 기업이다. 이들은 다른 기업보다 먼저 새로운 산업이나 제품 카테고리에 진입해 제품을 출시했다. 탄산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 안전면도기 시장에서 질레트, 즉석카메라 시장에서 플라로이드 카메라가 그렇다. 이들은 세상에 없던 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두 번째는 대중 시장에서 제품을 먼저 선도하는 기업이다. 틈새시장에 불과한 초기 시장에 진입해 얼마나 의미 있는 규모의 대중 시장으로 키우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에디슨의 대표적인 발명품인 전구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이 아니라는 사실은 유명하다. 에디슨의 등장 전 20여 종의 백열전구에 특허가 출원된 상태였다. 에디슨과 거의 같은 시기인 1879년 영국의 화학자 조셉스완은 가정용 백열전구를 발명해 대중 앞에서 시연까지 했다. 그러나 에디슨이 개발한 백열전구가 훨씬 뛰어나다는 이유로 전기 조명 시장을 대중화하는 데 선도했다. 최초의 온라인 서점도 아마존닷컴이 아니다. 온라인 서점은 1991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컴퓨터 리터러시 북스토어라는 서점 체인을 운영하던 찰스 스택이라는 사람에 의해 처음으로 구현되었다. 이처럼 최적의 시점에 시장에 진입해 성공하는 기업이 완전히 최초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선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최초가 아니더라도 시장을 정의하기에 따라 퍼스트 무버로 해석될 수 있다. 후발 주자의 혁신으로 시장이 재정의되고 선발 진입자가 몰락하거나 시장 전체 파이가 더 커지는 경우에는 시장을 재정의한 기업이 퍼스트 무버로 해석된다. 검색엔진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중 하나다. 검색엔진 서비스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첫 번째는 라이코스였으며, 이후 수많은 경쟁 끝에 가장 대중적인 도구로 검색 시장을 만든 건 야후였다. 그러나 계속된 혁신 끝에 남은 건 구글이라고 볼 수 있다.

퍼스트 무버는 세상을 바꿀 만큼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한 기업을 일컫는다. 그러나 최근의 산업은 변화 주기가 짧아지고 변덕스러워졌다. 최고의 방법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움직이는 리더를 지향하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21세기 경영 환경에서 지속해서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움직여야 한다.📍

역발상 질문에서 혁신이 시작된다

INVERSE CONCEPT MARKETING

역발상 마케팅



“애야, 껌 씹고 자는 거 잊지 마라.” 2001년 자일리톨 껌 TV 광고 대사다. 이를 닦으면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을 수십 년간 받아온 사람들의 눈길을 단번에 끌었다. 껌은 곧 충치를 일으키는 요인이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깬 광고 한 편으로 자일리톨 껌은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치과 의사가 추천하는 충치를 예방하는 껌이라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했고 자일리톨 껌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사용자에게 더 다가가기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로버트 서튼 교수는 “새로운 성공을 원한다면 옛 발상에서 벗어나 역발상을 하라.”라고 말한다. 자일리톨 껌은 잠들기 전에는 아무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 통념을 깬 제품이었다. 처음엔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고, 이후에는 먹고 자도 안전하다는 실험과 검증을 통해 시장에 자리를 잡았다.

로버트 서튼 교수는 기업이 영속되기 위한 혁신의 시작이 역발상이라고 말한다. 생존을 위해 모든 구성원을 영똥한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모든 구성원이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를 하는 기업은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즉, 역발상 마케팅이 성공하려면 기업은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생각을 펼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발상 질문에서 혁신이 시작된다

역발상 마케팅이란 기존의 것과 분명히 차별화된 마케팅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자의 잠재된 니즈(needs)를 찾아 표현함으로써 경쟁자와는 다른 방법을 통해 고유의 개성을 살리는 방식이다. 역발상 마케팅은 상품 자체를 기존과 다른 시선으로 생산하는 데 적용할 수도 있고, 상품을 다루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1991년 사과농장이 몰려 있던 일본 아오모리에 태풍이 몰아쳐 수확을 앞둔 사과 90%가 땅에 떨어졌다. 마을 전체가 축대밭이 되고, 한 해 동안 공들여 지은 농사가 모두 수포가 되었다. 그러나 아오모리 사람들은 방법을 찾았다. 떨어진 90%의 사과가 아니라 남은 10%의 사과에 집중했다. 10%의 사과를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로 마케팅을 펼친 것이다. 일반 사과보다 열 배나 비싸게 팔았지만,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였다. 마케팅 전략으로 아오모리 사과는 태풍 피해를 당한 B급 사과가 아니라 ‘태풍도 이겨낸 사과’가 되었다. 상품을 다루는 방식을 달리해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다.

드라마 <미생>에서는 상품 자체가 아닌 ‘고객의 니즈’를 강조한 사례가 나온다. 신입사원 장그래는 헐값에 구매한 양말과 속옷을 지하철에서 팔기 시작한다. 장그래가 강조한 건 ‘싼값’이었다. 종일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결국 팔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사우나 앞을 지난다. 그리고 사우나를 찾은 남성 고객에게 양말과 팬티를 파는 데 성공하고 주어진 미션을 완수한다. 장그래는 장사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언제 어떤 물건이 필요할지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는다.

계룡건설은 ‘샬티’를 만드는 기업이다. 사람들은 어떠한 도시에 살고 싶은지, 그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관한 역발상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혁신이 시작된다. 🌟



丁酉年 新年辭

대한민국 일등기업으로 도약하는 한 해

대망의 2017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의 도래를 알리며
만물과 영혼을 깨우는 동물이라는
닭의 해를 맞았습니다.

특히, 금년을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즉, 선견지명을 가지고
미래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감을 상징하는
닭의 해인 것입니다.



지난 丙申年 한 해를 회고해 봅니다.
국정혼란이 대한민국을 뒤덮어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불안,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혼미,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과 안보불안,
IS테러는 전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건설업계 또한
계속해서 일감 부족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룡은 임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쟁력과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룡 임직원 여러분!
우리모두 불안요소를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발전시켰던 것처럼
계룡의 불사조정신을 발휘하여
대한민국 일등기업으로 총매진합시다.

우리는 수주면이나 소화면에서
목표를 초과달성 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
그룹 임직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최고의 격려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 계룡인의 자세는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1. 전진 비약(前進 飛躍)
2. 소통 화합(疏通 和合)
3. 가치 창조(價値 創造)
4. VISION 2020

희망찬 2017년(丁酉年)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족의 행복을 빌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丁酉年 새해도
우리 모두의 꿈을 실현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기약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1.
명예회장 이인구





도전, 개척, 일로매진으로 성장하는 계룡그룹

계룡그룹 제47회 창립기념식

지난 1월 20일 창립 제47주년을 맞아 계룡건설, KR산업, 계룡산업, KR유통, KR스포츠, 계룡장학재단 등 계룡그룹 임직원이 계룡건설 본사 대강당에 모였다. 이날 행사에서 계룡그룹은 새로운 운영목표와 중점과제를 공표하고 우수사원과 장기근속자, 우수부서와 현장, 우수협력 업체 등을 시상했다.

지난 1월 20일 계룡그룹 제47회 창립기념식이 계룡건설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구 명예회장을 비롯해 계룡건설 및 계열사 임직원, 협력업체 사장단 등 500여 명이 함께했다.

계룡그룹은 창립 이래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도로, 교량, 지하철과 같은 토목분야와 주택, 경기장, 문화예술시설, 오피스 빌딩 등 건축 관련 전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매년 크게 성장했다.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현재 러시아, 네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라오스에서도 현지 맞춤형 전략을 세워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 공원 대전시 기증,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계룡장학재단을 운영해 지역 인재도 육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수많은 대통령상과 국무총리 표창,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일 년 동안 뛰어난 성과로 그룹을 빛낸 직원에게 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자랑스러운 계룡인상을 포함한 우수사원상 35명과 그룹 장기근속자 68명, 우수부서와 현장, 우수협력 업체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계룡건설 창립 제47주년 기념 수상자 명단

시상 후 이인구 명예회장의 기념사가 이어졌다. 이인구 명예회장은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지나고 2017년이 밝았다. 창립 47주년을 함께한 임직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한다.”라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1970년 1월 20일 ‘도전, 개척, 일로매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계룡건설을 창업했습니다. 계룡건설은 창사 10년 만에 충남 1위 건설사로 성장했고, 창사 21년 만에 대망의 1군 건설사로 성공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10위권 건설사, 중부권 최대 건설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2017년도 힘찬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한편 계룡그룹은 창립 47주년을 맞아 ‘진진비약, 소통화합, 가치창조, 비전 2020’을 2017년 새로운 운영목표로 정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중점과제로 ‘경영 시스템 개선, 기본과 원칙준수, 대형공사 수주 확대, 최상의 품질과 고객서비스 제공’ 등을 공표했다. ☺

- 30년 근속 •
이원복 윤건원 김연광 강호영 윤길호 윤정희
- 20년 근속 •
오태식 나형근 나두흠 이희석 박정규 김현창 박철용 이연향 이권희 임희빈 이병천 김현일 강인구 오은진 강구상 지근문 연제흠 이석봉 백형호 신성균 박종구 정희정 이건열 김진영 서용원 맹면호 금태길 김명필 이명봉 육성엽 한윤수 신건수 정대영 강경수 배준원 유창모
- 10년 근속 •
이영찬 남영귀 이진화 신상진 장병기 박찬식 이성호 이윤재 안재준 여일식 이동한 석정환 우정식 구재희 오병한 유선겸 김정욱 정영찬 사리기 이재섭 이상범 배성경 김영훈 이규완 최지묵 이광규
- 자랑스런 계룡인상 •
송인재
- 청룡상 •
원종희 김명일 신상철 서용원 박병렬 김익현 배종실 이주용 강전호 김명필 강성인 이용희 윤철성 이영찬
- 흑룡상 •
이규완 유선겸 강동걸 박범식 이유용 여태석 이지훈
- 감투상 •
김효식 김용민 이혁찬 이영민 장창수 최원희 민두홍 윤현경 최두희 임승호 김대성 김영선 최원준
- 장려상 • 송승섭 임홍순
- BEST 친철상 • 이소영 이가을
- 우수브랜드상 • 유빛나
- 특별상 •
(주)트라이포드건설
- 최우수부서(현장)상 •
건축영업부 토목영업부 둔내무이2도로
- 우수부서(현장)상 •
인삼(상)휴게소
- 우수부서(현장)상 •
상품개발부 공주의료원 총무인사팀 청주(상)휴게소
- 협력업체 최우수상 •
원창건설(주) (자)대우전기통신공사
- 협력업체 우수상 •
(주)영풍씨앤디 (주)에이치에스오 거운건설(주) (주)해창산업 한발조경 (주)광스틸 (주)동우 영인산업(주) 광희엔지니어링(주) 진우공영(주) (주)서진전기 천인상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계룡그룹 사회 공헌 활동

계룡그룹은 그간 회사와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왔다. 정기적인 후원에서부터 봉사활동까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오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계룡

계룡그룹은 도움이 필요한 곳을 후원하거나 직접 방문해 봉사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민한다. 먼저 계룡건설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대전·충남·세종지역에 매년 기부활동을 통해 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연말연시에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온정과 사랑을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희망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계룡건설은 지난 1월 25일에 세종시청에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안성구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17 나눔캠페인’에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 1월 26일에는 충청남도 부지사와 정진옥 충청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무처장 등을 만나 나눔캠페인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1일에도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희망 2017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성금 5천만 원을 기탁했다. KR산업도 연말연시나 명절을 앞두고 기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설을 앞두고 임직원들은 효양동산과 작은평화의 집을 방문해 생필품과 성금을 기탁했다. 뿐만 아니라 매월 임직원의 후원금을 모아 명절에 정기적으로 지역 장애우시설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신입직원이 입사하면 효양동산, 작은평화의 집 등에서 봉사활동 하는 시간을 마련해 지역 기업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게 하고 있다.



장학과 문화 사업

한편, 계룡그룹은 장학과 문화 사업 등으로 지역사회의 인재 발굴과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공익 기여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계룡건설은 1992년 12월 계룡장학재단을 설립해 지역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1992년 12월 재단 설립 이래 지급된 장학금의 총 규모는 연인원 13,964명 장학금 53억여 원에 달한다.

계룡장학재단은 장학 사업 이외에도 광개토태왕비 복제비 건립 사업을 비롯하여, 일본구주지역의 백제문화유적탐사 사업, 백야 김좌진 장군 추모 사업, 독도 우리 땅 밟기 사업, 류관순 열사 전기발간 지원 사업, 삼학사비 중건 사업, 백제 문화제 봉수대 건립 사업,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현 후원 사업, 벽지학교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자녀 장학금 지급, 학교폭력 예방대책 후원, 독도 정주민 후원 사업 등과 효자, 효부, 장한 어버이들과 충·효·예를 묵묵히 실천해 온 분들을 발굴 시상하는 유림경로효친대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계룡장학재단 이사장인 이인구 명예회장은 사재 100억 원을 들여 2년여에 걸쳐 유림공원을 조성해 대전시에 기부채납한 바가 있다. 2009년 개장한 이 도시숲 공원에서 계룡장학재단은 매년 유림공원 사생대회를 열어 그리기와 글짓기 꿈나무들을 응원하고 가족이 화합하는 장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10월 9일에 유림공원 사생대회를 열었다. 대전 시내 초등학생·가족 등 1,000여 명이 개인·단체로 참가해 '국화향 그윽한 유림공원의 가을'이라는 주제로 그리기와 글짓기 부문에서 솜씨를 뽐냈고 시상식에서 총 1,160만 원의 장학금을 시상했다.

한편, 계룡건설은 지난 2월, 공주시를 방문해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천만 원을 공주시한마음장학회에 기탁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

계룡그룹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으로, 기업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물론, 여타 기업의 문화를 이끄는 선도 그룹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윤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봉사에 참여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선다.

지난해 12월, 맹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KR산업에서는 이천 지역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연탄 2017장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연탄을 제공받은 주민은 "직원분들이 모은 금액으로 직접 연탄을 배달해주시니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데 있어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임직원 개개인도 소외 계층 및 불우이웃에 십시일반 후원하고 있다.

KR산업은 지난해 이천시가 펼치는 행복한 동행 '1인 1나눔 계좌'에 참여해 500여 계좌로 후원하고 이천시 관내 착한 일터로 선정됐다.

한편, 계룡그룹의 사회공헌은 소외 계층 및 불우이웃에 한

정되지 않고 국토보위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활동에 까지 이어진다.

계룡건설은 매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과 추석을 기해 육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와병중인 예비역 위문사업'을 후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에도 각각 1천만 원씩 전달한 바 있다.

'와병중인 예비역 위문사업'은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온정이 절실하지만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예비역 들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육군참모총장의 서신과 위문금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에 더불어 계룡건설은 2011년부터 육군과 복지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무주택 참전 유공자의 내집 마련사업인 '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에 매년 1억 원씩을 후원해 오고 있다.

계룡그룹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훈훈한 나눔의 실천을 이어 갈 계획이다. 🌐





계룡을 든든히 지킬 우리가 왔다

신입사원 워크숍 & 사령장 수여식

취업난 속에서 당당히 계룡가족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계룡건설 신입사원들이 워크숍을 떠났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신입사원들은 업무 적응을 위한 기본 교육과 동기 간 결속을 다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워크숍을 마친 후, 12월 26일에는 계룡건설 본사 대강당에서 사령장을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지난해 12월 26일 41명의 계룡건설 신입사원이 두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을 거쳐 계룡가족의 일원이 됐다.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지난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신입사원들은 속리산 유스타운으로 워크숍을 떠났다. 이번 워크숍은 직장 생활을 위한 에티켓을 배우는 자리였다. 오랜 직장생활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동기들과의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3일간 진행된 워크숍에서 신입사원들은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조직 예절과 비즈니스 에티켓 교육, 경영 시뮬레이션, 속리산 등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눈과 비가 섞여 내리던 22일, 속리산을 등반하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성재규 사원은 “워크숍을 통해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배울 수 있었다.”라며 “꼭 입사하고 싶었던 계룡건설의 일원이 되어 기쁘다. 열심히 경험을 쌓고 꾸준히 공부해 회사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원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며 계룡가족이 된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총괄한 총무부 정승훈 과장은 “조직 융합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워크숍을 통해 신입사원들이 계룡건설에 잘 적응하고 현장과 부서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계룡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워크숍 후, 지난해 12월 26일에는 계룡건설 사옥 대강당에서 사령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계룡건설 임원들은 “입사를 축하하고 환영한다.”라며 “긍정적 마인드, 도전정신, 동화와 융합, 목표를 위한 성실함으로 계룡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입사원들은 한 달 동안 업무를 위한 현장 교육을 받은 후, 지난 2월 1일 정식으로 부서 배치를 받았다. ●



신입사원 mini 인터뷰

‘이제는 나도 계룡가족’

- 곽민석** ● 계룡건설은 예전부터 꿈꾸던 곳입니다. 선배님들을 따라 좋은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 박준홍** ●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시작이 좋은 만큼 훌륭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 안정수** ●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굳건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계룡가족이 되겠습니다.
- 이병주** ● 늘 꿈꾸던 계룡건설 일원이 되어 너무 기쁩니다.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한상휴** ● 학생 신분에서 직장인이 되어 너무 새롭습니다. 계룡건설 발전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 황윤호** ● 계룡건설에서 토목 전문가로 일하며 회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1조 interview



4조 interview

- 오나람** ●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당당히 직장인이 되어 너무 기쁩니다. 20년 후 임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주밀음** ●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건설에 한 획을 긋는 토목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 전영민** ● 제가 꿈꾸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열심히 일을 배워 훌륭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 오용석** ● 계룡건설에 입사해 행복합니다. 최선을 다해 샅터를 만드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 최규석** ● 열심히 취업을 준비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 이도훈** ● 계룡가족이 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계설비 분야 전문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왕연** ● 계룡건설에 입사해 영광입니다. 계룡가족의 일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조 interview

- 박종현** ● 신입사원에 걸맞게 열심히 일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 조상범** ● 신입사원의 패기로 언제나 계룡가족이라는 이름이 빛나도록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정성훈** ● 산이 허락해야 사람이 오를 수 있듯, 입사를 허락한 계룡건설에서 성장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 정은목** ● 신입사원 워크숍에서 설산을 올랐는데, 그 경험을 잘 새겨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일수** ● 계룡가족 구성원이 되어 너무 기쁩니다. 계룡의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 곽동근** ● 계룡건설에 입사한 순간은 제가 간절히 원했던 순간입니다. 더 큰 꿈으로 성장하겠습니다.
- 박진성** ●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김준겸** ● A급 신입사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3조 interview

- 이승호** ● '계룡건설에 입사하다니, 내 분수에 맞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 김동환** ● 계룡건설에 입사한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시고요.
- 김동규** ● 취업이 어려운 요즘, 당당히 계룡건설에 입사해 기쁩니다. 이제 계룡가족이라는 사실이 실감 나네요.
- 오상우** ● 입사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했는데, 당당히 계룡가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 임성근** ● 계룡건설에 입사해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효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희강** ● 그동안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며 목표로 했던 계룡건설에 입사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 김승환** ● 최고는 최고를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선택한 계룡건설을 위해 최고가 되겠습니다.
- 김영진** ● 대전 사람으로 계룡건설에 입사해 너무 기쁩니다. 굿은일도 앞장서서 해결하겠습니다.
- 성내규** ● 저는 오랫동안 꿈꾸던 관리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양우석** ● 꽃바구니를 받고 행복해지는 부모님을 보며 저 또한 행복했습니다.
- 이진오** ● 2016년 하반기 동안 취업 준비로 힘들었는데, 입사해 너무 기쁩니다.
- 이현규** ● 제가 꿈꾸던 기업에 입사해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긴 직장생활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박은우** ● 계룡건설에서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5조 interview

- 김형태** ● 역시 최고 건설사는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저 또한 최고의 인재가 되겠습니다.
- 하준원**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 기쁩니다. 건축 전기 기술자로 성장하겠습니다.
- 여주호** ● 계룡가족 일원이 되어 너무 뿌듯합니다.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 김도형** ● 계룡건설에 입사해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 장진국** ● 신입사원 워크숍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잘 기억해서 무재해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 유창근** ● 신입사원 워크숍 내내 정말 즐거웠습니다. 계룡건설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 박진성** ● 계룡건설에서 저를 뽑아준 만큼 계룡건설의 성장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6조 interview

추울수록 뜨거워지는 계룡

2016 계룡 자전거 라이딩

지난해 11월 26일 계룡건설 직원 9명이 계룡 자전거 라이딩을 위해 모였다. 국토 정주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정도로 경향이 많은 직원, 취미로 친구와 자전거를 탄 게 전부인 자전거 초보 직원 등 실력은 천차만별이다. 계룡 자전거 라이딩에서는 실력도 자전거 종류도 중요하지 않다. 자전거를 사랑하는 마음이면 누구든 즐겁게 자전거 페달을 밟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차가운 겨울 아침 공기가 가득한 8시에 계룡건설 직원 9명이 2016년 계룡 자전거 라이딩을 위해 반석역 앞 만남의 광장에 모였다. 모두 자전거를 사랑하는, 자전거를 사랑하고 싶은 이들이다. 이번 행사는 야외 스포츠 활동을 통해 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업무효율을 증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리다. 이와 함께 계룡건설은 자전거 라이딩 모임을 시작으로 직원들이 사내 인터넷 게시판을 더 자유로운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전거 라이딩 모임은 설비부 한명중 과장이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한명중 과장은 지난 8월과 9월 네 차례에 걸쳐 라이딩 자전거 종류, 자에게 알맞은 자전거 선택 방법 등을 담은 '배워봅시다-자전거 라이딩 기초'를 연재했다. 연재가 끝난 후 자전거에 관심이 있던 직원들 사이에서 라이딩 모임을 갖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자전거 라이딩 모임이 결성됐다. 한명중 과장은 "자전거 라이딩 게시물을 보고 자전거에 대해 물어

보는 직원이 많았다."라며 "내가 올린 글을 읽고 라이딩 모임에 동참한 동료들을 보니 감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다. 이번 계기를 시작으로 라이딩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속도계와 액션캠 등 라이딩 장비를 꼼꼼히 준비한 참가자들은 13km가 넘는 거리를 달리며 세종호수공원으로 향했다. 이날 모인 계룡건설 직원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선두 라이더가 장애물을 발견하면 뒤 따라오는 동료에게 이를 수신호로 알린다. 앞, 뒷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달리며, 간격이 벌어지면 속도를 낮추고 함께 보조를 맞췄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보다는 함께 도착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건축영업부 이정훈 부장은 "자전거 라이딩은 함께 달리며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여가생활이다. 자연스럽게 친목도 도모할 수 있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자전거 라이딩 동호회를 빠른 시일 내에 결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자전거 라이딩 동호회는 한명중 과장이 중심이 되어 구축하고 있으며,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이 오면 본격적으로 라이딩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

세종시 최대 규모 상업시설을 넘어 신도시의 문화를 이끈다

세종 2-4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

[사업개요]

- | 사업명 |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
- | 위치 | 세종시 2-4 생활권 P2(CU2-2)블록
- | 규모 | 지하 3층 ~ 최고 12층
- | 호수 상가 | 상가 302실, 오피스 10실
- | 연면적 | 49,678㎡



지난해 12월 계룡건설이 세종시 2-4 생활권 P2구역에 건설하는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 홍보관을 오픈했다.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은 지하 3층~최고 12층, 상가 302실과 오피스 10실 규모의 상가시설이다. 인근 백화점/U.E.C(예정)과 도시상징광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중심점에 자리한다. 세종시 2생활권 3만 2천여 세대와 중앙행정타운 및 로데오 상권 등도 인근에 위치해 많은 유동인구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도보 5분 거리에 BRT정류장이 있어 세종시 전역에서 이동하는 인구가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세종시는 특색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디자인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 최대중심상업지 내에 위치한 어반아트리움 (P1~P5 구역)은 세종시 디자인설계공모에 선정된 건축물로 기존 상업시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다. 국내에서 가장 긴 1.4km 길이의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 상가 중심부에는 문화·예술 활동과 집회시설을 배치해 세종시 주민을 위한 컬러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구역별로 컨셉을 다르게 구성해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 1~2층에는 SPA브랜드와 다양한 F&B, 3층에는 패밀리레스토랑, 4층에는 생활잡화, 5~6층에는 다양한 카페와 헬스클럽, 병원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적 전통시장이라는 독특한 컨셉을 더해 투자자들의 큰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나아가 계룡건설은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 일부 상가를 직영으로 운영해 적극적으로 상가 활성화에 참여할 계획이다.

세종 2-4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 분양관계자는 "상업 기능 중심의 기존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이 아닌 문화와 휴식, 업무기능이 공존하는 문화 상업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행복한 도시를 위한 초석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조성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조성공사는 살기 좋은 행정도시 세종시를 조성하기 위한 택지개발 사업으로 행복청에서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다. KR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조성공사는 오는 6월에 본사업이 마무리되며 이후 9,500세대 4만여 명의 주민이 2-2생활권에 거주할 예정이다. KR산업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 품질 높은 택지와 주변 도로, 상하수도를 조성했으며 준공까지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공사명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조성공사 • 현장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일원 • 면적 1,415천㎡
• 공사기간 2012년 11월 ~ 2017년 6월 • 도급금액 53,804백만원 (지급자재 8,232백만원 별도) • 공정현황 계획 93% 실적 93% 대비 100%



9,500세대를 위한 새로운 생활권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조성공사는 세종시 정부청사 건설계획과 연계된 사업으로 부지조성 및 간선시설 등을 포함한 생활권을 적기에 조성하는 공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이룬 시일 내에 건설하기 위한 시작이기도 하다.

2-2생활권 조성공사는 산과 논, 밭이던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일원 43만 평 토지를 절토하고 성토해 아파트, 주택, 상가를 건설하는 택지와 주변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쾌적한 도시 생활을 위한 상수도과 하수도를 조성한다.

2012년 11월부터 시작한 공사는 2015년 11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보도 육교 3개소와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앞 1km 우수관로 공사가 추가되며 공기를 연장했다. 올해 6월 택지 준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 완료 후에는 지자체 이관 과정을 진행한다. 일부 직원이 현장에 남아 이관 최종 완료까지 토목 시설을 유지 관리한다. 현재는 준공을 앞두고 공사현장을 정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의 입주가 완료되면 9,500세대 주민 4만여 명이 거주하게 된다. 생활권에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 6개교는 오는 3월 2일 개교할 예정이다.



안전 공정표로 무재해 현장을 만든다

“택지공사는 사람을 위한 공사입니다. 주민들이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택지 내에는 타사의 아파트 공사도 진행되는 탓에, 이미 조성한 현장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 사업 완료시까지 꾸준히 현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조성공사 김복수 현장소장의 말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조성공사는, 정부는 물론 많은 이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이다. 그만큼, 현장 직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다방면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 월 1회 주기적인 현장 점검으로 안전한 현장, 쾌적한 현장을 만들어 왔다.

김복수 현장소장이 공사 동안 가장 강조한 부분이 바로 안전이다. 그는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 현장도 안전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조성공사팀은 안전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공정표를 작성할 때도 안전에 중점을 뒀다. 안전팀에서 모든 공정표를 확인하며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기재했다. 공정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 덕에 안전사고 없이 무재해로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남은 기간에도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무재해 현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목표라면 발주처에서 진행하는 품질 평가에서 좋은 성과는 내는 거죠. 마지막까지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보고 싶습니다.”



바쁜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

건강한 몸과 마음이 안전한 현장을 만듭니다.

바쁜 현장 업무 중에도 틈틈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자기만의 방법이 필요한데요,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조성공사 현장 직원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까요?



김복수 현장소장

저는 평일에 못 본 한 주간 TV프로그램을 주말에 몰아서 봐요. 역사와 관련한 드라마를 가장 좋아하는데, VOD로 중간마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골라서 보는 편이에요. 20분이면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죠.



김명호 사원

스트레스 해소에는 역시 운동이죠. 바쁜 업무로 시간이 많지 않지만, 틈틈이 현장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철봉을 이용해 운동합니다. 큰 도구가 필요하지도 않고, 부담 없이 언제나 쉽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성우 안전팀장

전 특이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욱이예요(웃음). 화나는 일이 있으면 속에 담아두지 않아요. 솔직하고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편이죠. 물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죠. 친한 사람들과 웃으면서 하는 욱이랄까요.



김영준 품질담당

에어 축구요.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바쁜 업무로 공을 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걸어 다니며 축구하는 동작을 취해요. 발 아래 공이 있고 눈앞에 골대가 있다는 생각으로 시원하게 슛을 날리는 거죠.



정종필 공사팀장

저는 배드민턴이요. 지금도 차 안에 라켓이 있는데요. 배드민턴은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가장 큰 장점이죠. 업무로 지칠 때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배드민턴을 하는데요. 땀을 흘리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최영재 사원

전 입사한 지 며칠 안 된 신입사원입니다. 아직 현장 업무를 익히는 중인데요. 평소에 좋아하는 운동을 틈틈이 하면 스트레스를 쉽게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헬스 후 샤워에서 몸을 풀고 간단히 술 한 잔을 기울이면 기분이 다시 좋아질 것 같아요.



박두용 공무원팀장

이제 64일 된 아기 얼굴을 보는 게 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업무 중 아내가 실시간으로 보내 준 아기 사진을 보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요. 저를 닮아서 그런지 아주 미남이에요. 아주 모범 답안 아닙니까. 지금도 열린 아기 얼굴이 보고 싶네요.



강교석 주임

영화를 보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니다. 특히 코미디 영화를 즐기는데요. 영화를 보는 두 시간 동안 실컷 웃으면 힘들고 화났던 일들이 싹 잊혀요. 유쾌한 영화에 맛있는 음식을 곁들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적 개최, 우리가 책임집니다”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아이스하키1 경기장

아이스하키2 경기장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아이스하키1, 아이스하키2,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한 해 앞으로 다가왔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계룡건설은 평창 올림픽에 사용될 경기장 세 곳을 만들며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맞았다. 이번에 완공된 아이스하키1, 아이스하키2,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은 평창 올림픽의 주요 경기를 치를 경기장으로 국내외의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안전과 품질 관리에 신경쓰며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최고 품질의 경기장 세 곳이 평창 올림픽을 치를 준비를 마치고 있다.



생생한 아이스하키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곳

아이스하키1 경기장

아이스하키1 경기장은 피겨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함께 스포츠 콤플렉스 내 위치한다. 하키 스틱 8개를 형상화한 8각 지붕의 주경기장과 심플한 구조의 보조경기장이 나란히 놓였다. 주경기장의 지붕은 조인트가 끊어지지 않게 연결해 미려함이 돋보인다. 주경기장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보조경기장은 연습 경기장으로 쓰인다. 주경기장 아이스링크와 관중석 사이의 거리는 1.6m로, 관객이 생생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체 공조 시스템으로 누구나 따뜻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김익현 소장은 “아이스하키1 경기장에서 진행한 평창 올림픽 D-365 행사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 기운을 이어 올림픽 경기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대지 위치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591번지 | 대지 면적 | 96,105㎡
| 건축 면적 | 18,926㎡ | 연면적 | 30,058㎡
| 주경기장 규모 | 지상 1층 ~ 지상 3층, 10,009석
| 보조경기장 규모 | 지상 1층, 495석



| 대지 위치 |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길 579-24 가톨릭관동대학교 | 대지 면적 | 51,100㎡
 | 주경기장 건축 면적 | 10,507.17㎡ | 연습 경기장 건축 면적 | 3,564.38㎡
 | 주경기장 연면적 | 19,622.58㎡ | 연습 경기장 연면적 | 3,570.56㎡
 | 주경기장 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 5,592석 | 보조경기장 규모 | 지상 2층, 492석



올림픽 이후에도 사랑받는 경기장으로

아이스하키2 경기장

아이스하키2 경기장은 가톨릭관동대학교 내에 위치한다. 경기가 펼쳐지는 주경기장과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연습경기장이 대학교 정문 바로 근처에 자리했다. 곡선미를 살린 두 경기장의 조화로운 작은 소나무 숲 사이에서 빛을 발한다.

판넬을 이어 만든 지붕에는 ZIP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음 부위를 외부로 돌출시켜 누수를 방지하는 공법이다.

준공을 마친 아이스하키2 경기장은 올 봄에 테스트 이벤트로 세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한다. 아이스하키2 경기장은 평창 올림픽 이후,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종합경기장으로 활용한다.

이승규 소장은 “공사를 마친 지금, 강릉시나 강원도 내에서 계룡건설의 기업 이미지가 좋게 형성됐습니다. 아이스하키2 경기장에서 올림픽을 잘 치르고 이후에는 경기장이 학생들과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피겨쇼트트랙의 저변 확대를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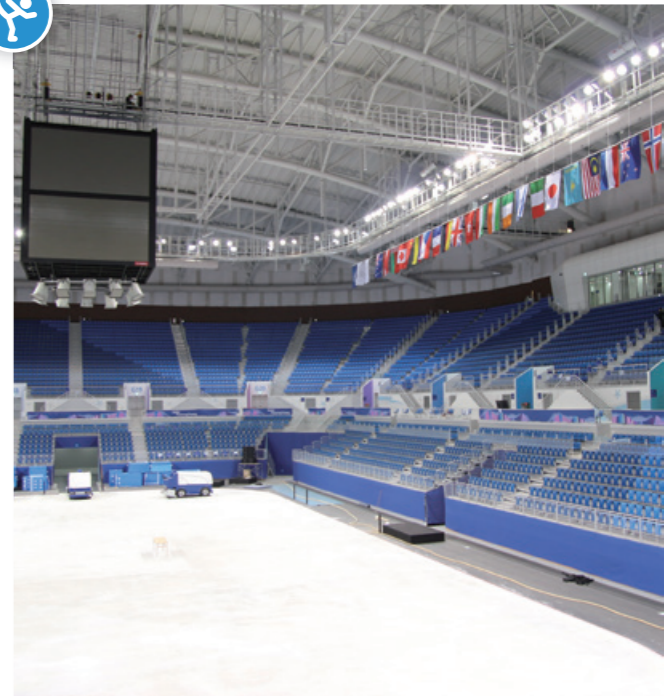
피겨쇼트트랙 경기장(강릉아이스아레나)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은 준공 전부터 스포츠 매니아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 곳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이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은 지상의 주경기장과 지하의 보조경기장으로 나뉘어 있다. 주경기장에서 경기가 펼쳐지며 보조경기장에서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올림픽 기간이 끝나면 경기장은 강릉시에서 스케이트장과 수영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은 보완 작업 중에 있다. 이미 국내 대회 행사를 치렀고 4대륙 피겨 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다.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른 선수들은 ‘국내 최고의 빙질’이라고 호평했다.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은 아이스하키1 경기장과 함께 스포츠 콤플렉스 내에 위치한다. 세 현장 모두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기에 서로 소통하며 최고 품질의 경기장을 만들었다.

박종구 소장은 “세 현장의 소장이 모여 기술적인 의견을 나누고 서로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모두가 평창 올림픽을 미리 준비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임한 결과 무사히 공사를 마쳤습니다. 계룡건설이 심혈을 기울인 경기장에서 평창 올림픽을 무사히 치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



| 대지 위치 | 강원도 강릉시 교동 468-42번지
 | 대지 면적 | 124,456㎡ | 건축 면적 | 15,121㎡
 | 연면적 | 32,398㎡
 | 규모 | 지하 2층 ~ 지상 4층, 12,320석



쾌적하고 안전한 공항 한국의 첫 이미지다

공항용역사업소

인천국제공항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 처음 접하는 곳이다. 한국의 첫 이미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항 토목시설은 공항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시설물로 공항 품질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그만큼 발주처에서 많은 조건을 내세우는 사업이며 일의 강도도 높은 편이다. KR산업 공항용역사업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공항 시설물을 유지·관리한다. 이용객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공항을 이용하도록 밤낮없이 일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곳곳에 KR산업의 손길이 닿아 있다

공항용역사업소는 인천국제공항의 토목시설을 유지·관리한다. 공항도로지역 약 120km와 청사주차장, 종합운동시설, 화물터미널지역 등 물류지역 주차장, 전면교, 가교량, 신블램프교, 가설교량 등을 KR산업에서 관리한다. 랜드사이드 공동구, 화물터미널 직반송로, 관리지역 공동구, IBC지하차도 등 지중구조물, 방조제, 우수지, 우수 및 오수 배수관로 시설 등 배수시스템, 물류단지지역(자유무역지역 등) 토목시설도 이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배수갑문 3개소, 공원 주차장, 사면 등 공항주변 시설과 건설공사 후 발생하는 유후 토목시설, 외곽 보안도로 교통안전시설 및 표지시설 등 공항지역의 L/S 토목시설도 관리한다.

세부적으로 포트홀 보수와 표지판 정비, 교통안전시설 정비, 배수로 정비를 일상유지·관리하며 도로포장 보수, 석판(보도블록) 보수, 라인마킹 보수, 우수관로 CCTV 등을 유지하고 보수 공사한다. 교량과 공동구, 배수갑문 등의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며 공항대로, 화물터미널 제설작업과 염수 교반 및 상차 업무도 관리한다.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시설을 공항용역사업소가 관리하는 셈이다. 이 중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중요 시설물인 1종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 시설물 안전 관리 특별법에 따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배수갑문은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우수지 수위를 조절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인천국제공항은 바다를 방조제로 막아 만든 매립지 위에 건설돼 주기적으로 물을 배수해야 한다. 이에 공항용역사업소는 배수갑문을 관리하며 물이 일정 수위를 넘으면 배수갑문을 열어 물을 방류한다. 배수갑문 주위에 낚시하는 관광객이 모이는 경우가 있어 방류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방송을 하며 사이렌 정보음을 울린다.

인천국제공항 개항부터 함께한 KR산업

KR산업은 2000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던 시점부터 2008년까지 활주로와 도로 토목 시설을 유지 관리했다. 2008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활주로와 도로를 분리 발주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했다. 이에 KR산업은 2013년도까지 공항 활주로를 관리했고 2013년 이후부터는 교량, 도로





등을 유지하고 정비하는 관리 사업을 맡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에는 3년 동안 수행한 업무 평가를 거쳤으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8년까지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KR산업은 2018년 6월 새로운 인천국제공항 토목시설 유지관리사업 수주를 위해 다시 입찰할 계획이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토목시설과 활주로 도로 두 분야 모두 입찰을 준비해 수주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공항용역사업소에는 공무원 12명, 공사관리팀 22명, 유지관리팀 36명 총 71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70명이 넘는 직원이 함께 일하며 서로 부대끼는 사람 냄새나는 부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 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항용역사업소 오준석 소장의 바람이다. 오준석 소장은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을 준비하던 2000년부터 인천국제공항 토목시설 유지관리 현장에서 일했다. 2003년과 2012년 사업 재입찰을 준비하며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보냈다. 이제는 KR산업 내에서 공항 유지관리 업무 전문가로 불린다.

“인천국제공항 토목시설 유지관리 현장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기 전부터 공항 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처음 발령 받았을 때는 영종대교가 개통하기 전이라 배를 타고 출퇴근했죠. 개항 후 인천국제공항을 드나드는 여객기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지리를 꿰뚫고 있다

공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절마다 신경 써야 할 업무가 달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나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기이다. 눈이 오는 날이면 공항으로 이동하는 차량 통행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꼼꼼히 살피며 눈으로 도로가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의 우선순위를 제설 작업에 둔다. 진행하던 모든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모든 인력이 제설작업에 배치되는 경우도 많다. 겨울은 시설물을 보수하기에도 어려운 계절이다. 추운 날씨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국제공항 공항용역사업소는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겨울에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주력한다. 제설 작업처럼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업무 대부분은 소장, 팀장의 재량에 따른 보수 작업이다. 계획에 따라 일정을 조정해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보수를 시작한다. 소장과 각 팀장은 매일 인천국제공항 도로를 수시로 점검하며 토목시설 곳곳을 확인하고 보수 계획을 세운다.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지리를 꿰뚫고 있을 정도다. 이외에도 발주처가 긴급하게 요청하는 업무도 빠르게 처리해야 하며 협력사 인력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토목시설 대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협력사 간 장비 지원은 물론 공항용역사업소 소관이 아닌 공항 내 시설물 보수 작업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안전한 작업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

공항용역사업소는 안전관리를 최우선에 둔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언제나 세심하게 도로 상황을 확인한다. 시가지도로, 고속도로와 연결된 도로가 많은 인천공항은 사고가 잦을 수 있는 곳이다.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KR산업 공항용역사업소는 3교대로 근무한다. 주말에도 비상근무하며 비상매뉴얼을 갖춰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재산 피해가 없도록 한다. 사고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신속히 시설을 이전 상태로 보수한다.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월 단위로 안전점검을 하고 일 년에 두 차례 정기점검을 한다.

“안전한 현장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KR산업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언제나 안전하고 쾌적하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요. KR산업의 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해 이용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항을 이용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오준석 소장은 작업자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그는 작업자의 안전이 사용자의 안전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매일 아침 9시 안전 체조를 시작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소장이 욱 들어도 되니까 무조건 안전에 유의해라. 업무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 안전하게 일해라.’ 작업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해야 결과물도 안전해집니다. 공항용역사업소 구성원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Millennium Bridge

시간 사이를 잇다

영국 밀레니엄 브리지



2000년, 새로운 천 년을 맞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상징성을 주었다. 영국은 밀레니엄의 상징성을 활용하기 위해 1995년 밀레니엄위원회를 설립해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밀레니엄 브리지는 이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다리로,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찾아오는 곳이다.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놓인 다리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밀레니엄 브리지는 세인트 폴 성당과 테이트모던 미술관을 연결하는 다리다. 밀레니엄 브리지가 건설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테이트모던 미술관을 가려면 빙 돌아서 가야 했다. 두 장소 모두 워낙 유명한 관광지였기에 밀레니엄 브리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컸다.

밀레니엄 브리지는 2000년 6월에 처음 개통했다. 개통 후 수많은 사람이 찾았으나 건널 때마다 다리가 흔들린다는 진단을 받았다. 개통한 지 이틀 만에 다리를 폐쇄하고 1년 반 뒤인 2002년 2월에 다시 개통했다.

자동차와 사람이 다리를 건너는 방식이 달라서 생긴 문제였다. 보통 다리에는 자동차와 사람이 함께 지나다니는데 밀레니엄 브리지는 오직 사람만이 지나도록 만든 다리였기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 1년여 후 재개통한 이후에는 다리가 흔들리는 일이 없었다.

밀레니엄 브리지의 전체 길이는 370m이고 너비는 4m이다. 디자인의 우선 조건은 사람이 다리를 건너며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두 개 기둥과 아홉 개의 강철 줄, 알루미늄 상판으로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우리가 흔히 구름다리라고 부르는 현수교인데도 줄을 매단 기둥이나 늘어뜨린 줄이 보이지 않는다. 구름다리 하면 떠오르는 기둥과 줄은 다리 양옆으로 누워 있어 기둥을 높이 세우지 않았다.

다리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Y자형 교각 두 개를 설치했는데, 교각 사이 중앙부의 구간 길이가 100m가 넘는 구조다. 모든 부재는 구조재를 제외하고는 경량화했다. 바닥 판도 얇은 경량판재로 구성되어 있다.

밀레니엄 브리지는 런던의 두 개의 중요한 목적지를 연결하며, 개통 후에는 그 자체가 목적지가 되었다. 밀레니엄 브리지 건설 전에는 세인트 폴 성당과 테이트모던 미술관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없었지만, 이제는 양방향으로 다리를 건너며 두 곳 모두를 볼 수 있다.

건너는 기능만 생각한 게 아닌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만든 다리, 관광지의 특색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설계한 밀레니엄 브리지는 아직까지도 많은 관광객과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다. 🌐



우리 가족 항상 이렇게 웃자

계룡산업 덕유산(하남방향) 휴게소
전상찬 관리과장 가족



계룡산업 덕유산(하남방향) 휴게소 전상찬 관리과장 가족이 특별한 저녁 나들이에 나섰다. 대전 집에서 근무 중인 휴게소까지 출퇴근을 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전상찬 과장은 평소 휴게소 기숙사에 머무른다. 기숙사에 머무르고 있는 틈에 업무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인지 여섯 살 딸 서현이와 세 살 아들 재현이의 얼굴에 장난기 있는 미소가 가득하다. 아내 김영아 씨도 오랜만의 외출이 즐거워 보인다. 재현이는 전상찬 과장 품에 안겨, 서현이는 김영아 씨의 손을 잡고 걷는다.

가족의 소소하고 행복한 나들이

가족이 향한 곳은 대전의 한 샐러드 음식점이다. 샐러드로 든든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샐밥’이 이곳의 인기 메뉴다. 큰 보울에 갖가지 채소와 삼겹살, 연어 등 곁들임 재료가 잘 어우러진 영양 만점 한 끼가 채워졌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가족의 즐거운 대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전상찬 과장은 2007년에 계룡산업에 입사해 올해로 딱 10년 차를 맞았다. 본사에 근무한 1년을 제외하고는 죽암 휴게소에서 7년, 덕유산 휴게소에서 2년을 지냈다. 현재 덕유산 휴게소에서 고객 응대, 대외 업무 등 관리 총괄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들은 전상찬 과장이 오는 날이면 아빠 곁을 떠나지 않는다. 이날도, 오랜만에 보는 아빠가 반가운듯 경쟁하듯이 전상찬 과장 무릎에 앉았다.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제일 좋다는 아이들이다.

“아빠가 말 태워주고 헬리콥터 해 줘서 좋아요.”

서현이가 말하는 ‘헬리콥터’는 전상찬 과장이 아이들과 놀아 주는 한 방법이다. 이불로 아이들을 싸매고 놀이기구처럼 왔다갔다 하는 놀이다.

“저보다는 제가 들고 가는 선물을 더 좋아하는 걸요. 과자, 봉어빵, 딸기 이런 것들 사 가요. 애들이 딸기를 좋아해요.” 전상찬 과장은 집에 갈 때면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항상 아이들 먹을거리를 사 간다.

전상찬 과장이 바라는 것은 소박하다. 바로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것.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빵집 아빠? 백 집 아빠!

감영아 씨는 전상찬 과장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다. 전상찬 과장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가정을 챙기고 내조에 신경 쓴다. 전상찬 과장이 없을 때 혼자 두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친정의 도움도 받고 지금은 아이들도 커서 한시름을 덜었다.

엄마 마음을 아는지 서현이가 똑 부러지게 재현이를 챙기고 재현이도 때 한 번 부리지 않는다. 전상찬 과장은 가족을 생각하면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든다.

“휴게소 일이라는 게, 남들 놀 때 못 놀고 남들 쉴 때 못 쉬거든요.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이제는 이러한 생활이 익숙해져서 우리 가족만의 행복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어딜 가도 사람들로 붐비는 날 대신, 여유로운 평일의 외출에 적응하게 된 것이다. 아이들도 전상찬 과장의 업무를 이해해, 때를 쓰지 않는다. 감영아 씨는 혹시라도 아이들이 서운해 할까봐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 하기도 한다. 누구보다 전상찬 과장을 믿고 응원하기에, 부담 주지 않으려 한다는 그녀다.

맛있는 한 끼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옮긴 곳은 갤러리 카페다. 차 한잔 마시며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 전시된, 자연을 소재로 한 세밀화를 아이들이 흥미롭게 바라본다.

“아이들이 그림 보는 걸 보니 새삼 컸다는 게 실감 나네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렇게 컸어요. 아이들이 항상 웃을 수 있게 아빠로서 힘을 내야죠.”

가족은 ‘원동력’이다

“휴게소 생활을 하면 어려운 점도 많은데 직원끼리 푹푹 뭉쳐서 헤쳐나가고 있어요. 팀워크가 좋아야 일하기도 즐겁죠. 사적인 어려움이 생겨도 서로 이야기하고 풀어나가는 편이에요.”

덕유산 휴게소에서도 전상찬 과장은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긴다. 서로 가족처럼 지내야 일도 힘들지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집에서는 가장으로, 휴게소에서는 관리과장으로 챙겨야 할 것이 많지만, 전상찬 과장은 가족 덕분에 힘을 낸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아이들

웃는 모습을 보면 싹 잊혀져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업무에 집중하죠. 가족이 삶의 원동력이란 걸 항상 느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덕유산 휴게소가 우수 휴게소에 선정되는 것이 그의 목표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전상찬 과장이 감영아 씨에게 한마디 한다. 누구보다 고마운 아내다. “나랑 살아 줘서 고마워. 앞으로 더 잘할게.” 감영아 씨가 웃으며 대답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가정을 위해 힘써 줘. 나도 잘할게.”





김용규 사원

손지완 과장

볼링핀 사이로 흐르던 그들의 이야기

멘티 김용규 사원, 멘토 손지완 과장을 만나다

총무부 김용규 사원과 경영정보실 손지완 과장이 향한 곳은 회사 근처의 한 볼링장이었다. 일과를 마치고 두 사람이 함께 볼링장에 간 건 처음이었다. “회사 앞에 있어서 자주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일 마치고 만나면 대부분 술이죠. 술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도 가끔 볼링장 같은 데 와서 몸 푸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평소 140~150점 정도 나온다는 손지완 과장과 평소 110점 정도 나온다는 김용규 사원이 레일 위에 섰다. 김용규 사원의 자세는 정직하다. 조심스럽게 한 발씩 가서 곧게 뻗은 팔로 볼을 던진다. 손지완 과장은 그보다는 자연스럽게. 볼링공을 닦는 것부터 레일 위를 걷는 모양새까지 동작 하나하나에서 두 사람의 성격이 보인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멘토

“회사에 우리 대학 출신이 거의 없어요. 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분 더 계신가? 같은 학교라는 공통점 때문에 손 과장님과 멘토가 된 것 같아요.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자주 뵐 수 있으니까 손 과장님이 멘토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뻐요.”

김용규 사원과 손지완 과장은 2016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만났다. 김용규 사원은 계룡건설에 입사하며 대전에 살기 시작했다. 고향은 전주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으니 대전은 아무 연고도 없는 도시였다. 동기들 말고는 편하게 어울릴 만한



사람도 없었다. 다행히 같은 학교 출신인 손지완 과장이 멘토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는 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학교 졸업하고 계룡건설이 두 번째 직장이에요. 비록 대전에서 혼자 지내야 하기에 외롭기도 하지만,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어 정말 기뻐요.

작년에 입사하고 멘토-멘티 결연식 때 손 과장님을 만났어요. 제가 먼저 연락도 하고 찾아뵈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과장님이 먼저 연락도 주시고 챙겨 주셨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저도 제 이야기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한 달에 두세 번도 만나서 간단하게 저녁만 먹고 헤어지기도 했어요. 선배가 먼저 후배에게 다가가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의 바르고 깃듯한 멘티

손지원 과장은 2010년에 입사했다. 대전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녔기에 계통건설이 낯설지 않았다.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8년 차 과장이 되었다.

“신입사원들 보면 처음 입사했을 때 생각이 많이 나요. 나는 그때 어떻게 했었는지 돌아보게 되고, 그때 내 선배들은 어떻게 해 줬는지 생각하다 보면 고맙기도 하고요. 저도 받았으니까 받은 걸 되돌려 주는 거예요.” 김용규 사원은 처음 봤을 때부터 참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보면 볼수록 성실하고 묵묵하게 회사 생활을 하는 김용규 사원이 대견했다. 아무리 사람을 좋아하는 손지원 과장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멘티였다면 이렇게까지 만나지는 않았을 거다. 김용규 사원을 만나며 배우는 것도 많다.

“용규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용규 동기들도 함께 만나요. 이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들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고, 그 친구들 대화 속에서도 제가 많이 배워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볼링핀 개수만큼 매번 서로에게 배웁니다

“난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미용실에 가.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스트레스 쌓일 때 풀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손지원 과장이 가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알려 주니, 김용규 사원이 눈을 반짝이며 듣는다. 김용규 사원도 앞으로 일이 능숙해지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시 해 볼 생각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중국어 공부다.



“전 중국어가 정말 좋아요.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학원 새벽반이 없어서 등록을 못 했어요. 좀 여유가 생기면 중국어 공부를 다시 할 생각이예요.”


여행을 좋아하는 손지원 과장은 1년에 두 번 해외여행을 가는 게 목표다. 작년까지는 지켰고,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도 목표로 세워두고 다음엔 어디에 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설렌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여행하며 찍은 사진을 보고, 그때 느꼈던 감정을 떠올리는 것도 여행의 묘미다.

“혼자 가는 여행도 좋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도 좋아요. 외국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오면 정말 시야가 넓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용규에게도 젊었을 때 여행을 많이 다니라고 이야기해요.” 이날 볼링장에서 손지원 과장은 133점을 내고, 김용규 사원은 118점을 냈다. 손지원 과장은 평소보다 점수가 조금 덜 나왔고, 김용규 사원은 평소보다 높게 나왔다. 1년 동안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고 대화하다 보니 이제 둘 사이에 어색한 기류는 하나도 없다. 김용규 사원은 손지원 과장이 다정한 열 마디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한마디를 해 주는 걸 안다. 손지원 과장은 김용규 사원이 정말 성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하며 사람이 남는 것 같아요. 좋은 후배이자 동료로 얻은 거죠. 용규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회사 생활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저도 계속 배우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는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겨울 강원도 여행에
빠질 수 없는 곳 

평창(강릉방향) 휴게소



평창(강릉방향) 휴게소는 평창, 강릉을 비롯한 강원도 일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곳이다. 대관령을 근처에 두고 있어 한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곳은, 겨울철이면 겨울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다. 호호 불며 먹는 따뜻한 주전부리와 뻥속을 든든히 채워 주는 한 끼를 먹으면 겨울 스포츠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여타 휴게소들이 흔히 '비수기'라고 하는 겨울철에도 평창 휴게소는 많은 사람으로 붐빈다. 스키장, 겨울 산 등 겨울철 휴가지가 근처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때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지난해, 평창 휴게소는 리모델링을 마치고 더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먹거리를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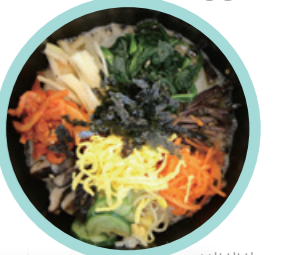


쾌적한 식당, 맛 좋은 먹거리

작년, 평창 휴게소는 리모델링을 통해 스낵 코너와 식당 내부를 모던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바꾸었다. 식당 내부는 마치 분위기 좋은 카페처럼 구성했다. 혼자 휴게소를 찾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혼자서 천천히 식사하며 무선으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긴 테이블도 구비했다. 내부를 리모델링하며 조리 환경이 쾌적해진 것은 물론이다. 작년 말, 한 식당 두 곳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 인증을 받았다. 평창 휴게소의 대표 메뉴는 장터국밥과 황태해장국이다. 매콤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장터국밥을,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황태해장국을 추천한다. 각종 야채가 어우러지는 비빔밥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좋아하는 메뉴다. 평창의 특산물인 메밀로 만드는 막국수와 전병도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좋다.



양빵



비빔밥



황태해장국, 장터국밥



혼밥족을 위한 공간, 무선으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다



화장실 내부



리모델링을 하며 주전부리 코너에는 폴딩 도어를 설치했다. 겨울철, 주전부리를 먹을 때 찬바람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주전부리 메뉴가 있지만, 그중 양뽕은 양떼목장이 있는 평창의 특징을 보여주는 평창 휴게소의 대표 주전부리다.

평창 휴게소 신형진 소장은 “쾌적한 환경은 물론, 음식의 맛과 가격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길 오시는 분들을 위해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설렘이 기다리는 곳

휴게소를 리모델링하며 신경 쓴 것 중 하나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다. 휴게소 내외부 곳곳에 선수들이 실제 사용했던 용품과 동계 스포츠에 관한 정보를 전시하는 등 동계 스포츠를 테마로 생동감 있는 느낌을 살렸다. 직접 스키를 타는 듯한 포즈를 취할 수 있는 포토존도 만들었다. 스포츠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전시와 포토존을 통해 평창 올림픽에 관한 기대를 키울 수 있다.



직접 스키를 타는 것처럼 연출할 수 있는 포토존

한편, 평창 휴게소 화장실은 한국도로공사의 ‘우수 국민행복 화장실’에 선정됐다. 또한, 한국화장실협회의 화장실문화품질인증을 받았는데, 동계 스포츠를 테마로 한 점은 물론, 화장실 내부 정보 알람판 설치 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은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행사다. 그만큼 평창 휴게소는 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올림픽 기간에는 평창군의 지원으로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통역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도 평창 휴게소에는 뜨거운 에너지가 감돈다. 리모델링 이후 제2영동고속도로까지 개통되며 더 많은 사람이 평창 휴게소를 찾고 있다. 신형진 소장은 평창 휴게소를 다시 오고 싶은 휴게소로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강원도의 길목에 있어 어쩔 수 없이 방문하는 곳이 아닌, 한 번 찾으면 꼭 재방문 하고 싶은 휴게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리모델링 이후 많은 분의 사랑을 받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 휴게소에는 따듯한 미소와 정, 그리고 든든하고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오시는 분들 잊지 말고 저희 휴게소에 들러 주세요.”



신형진 소장

평창 다이나믹 화장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Pyeongchang Dynamic Toilet



동계올림픽 알아가기

실 상 | 빙 상 | 슬라이딩



겨울에 조성하는 얼음공원은 포토존 역할을 한다



최호준 주임

송건우 주임

마른 체형을 풍성하게 패션아일랜드에서는 누구나 모델이 된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다. 어떤 옷을 선택하고 어떻게 코디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말이다. 자기 체형의 단점을 보정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코디 방법을 알아두면 누구나 멋진 몸매를 가질 수 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 요즘, 계룡건설 개발사업본부 주택개발1팀 송건우 주임과 해외 사업본부 해외영업팀 최호준 주임이 패션아일랜드에서 체형을 보정할 수 있는 코디 방법과 제품을 소개한다.



지이크 파렌하이트



옷 하나로 넓은 어깨 만들기

좁은 어깨가 콤플렉스인데 운동할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넓은 어깨를 쉽게 만들 방법을 소개한다. 어떤 옷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어깨를 우람해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어깨가 좁은 사람이라면 밝은색 상의와 어두운색 하의를 매치하는 게 좋다. 어두운색은 체구를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어깨가 좁은 사람이 검정색과 같은 어두운 계열의 상의를 입는다면 체구가 더 작아 보인다. 반대로 체구를 커 보이게 하는 밝은 계열의 재킷이나 니트를 선택한다면 자신의 체형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다. 밝은색 셔츠를 선택했다면 소매를 살짝 걷고 두꺼운 금속이나 가죽 소재의 시계를 매치해보자. 넓은 어깨와 함께 탄탄한 손목을 노출해 운동 없이도 남자다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가로줄 무늬 티셔츠나 셔츠도 넓은 어깨를 연출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단, 세로줄 무늬는 꼭 피하자. 세로줄 무늬 티셔츠나 셔츠는 몸을 왜소해 보이게 하는 시각적 효과가 있어 좁은 어깨를 더 좁아 보이게 만든다. 어깨 패드를 부착한 재킷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 어깨선을 자기 체형에 꼭 맞춰 패드가 어깨에서 걸도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깨가 넓어 보이는 밝은 색상의 코트 53만 원대 두툼한 소재로 풍성한 어깨를 만드는 니트 15만 원대 파워 스트레치 원단으로 활동성을 높인 바지 16만 원대 _ by 지이크



온/습도 변화에 맞춰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패딩코트 56만 원대 가로줄 무늬로 어깨 팽창 효과를 주는 니트 11만 원대 어떤 색상의 니트와도 쉽게 매치할 수 있는 기본 셔츠 11만 원대 _ by 지이크



격식 있는 자리와 편안한 자리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재킷 17만 원대 상체가 풍성해 보이는 맨투맨 3만 원대 도심 속 익스트림 무빙이 가능한 청바지 5만 원대 _ by 테이트

투박한 느낌으로 풍성한 체형을 완성하는 롱 재킷 13만 원대 왜소한 몸매를 보정하는 루즈핏 후드티 5만 원대 _ by 테이트

마른 몸도 풍성한 체구로

아무리 먹어도 체중이 늘지 않아 고민인 사람이라면 체형을 풍성해 보이게 만들어 주는 코디 방법을 기억해두자. 가장 쉽게 풍성한 체형을 만드는 방법은 레이어다. 다양한 옷을 겹쳐 입는 레이어드는 패션 감각을 뽐내며 자신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셔츠 위에 두툽한 소재의 니트를 입고 그 위에 재킷을 걸쳐 입는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코디법이다. 다양한 옷을 레이어드할 때는 서로 다른 소재를 활용하고 조화로운 색상 아이템을 선택해야 한다.

좀 더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두꺼운 맨투맨을 추천한다. 맨투맨을 선택할 때는 알맞은 사이즈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자기 체형보다 조금 큰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옷이 꼭 맞으면 마른 체형이 그대로 드러나고 너무 큰 사이즈를 선택하면 오히려 왜소해 보인다. 바지를 선택할 때도 여유 있는 품의 바지를 선택하는 게 좋다. 스키니 진은 피하고 자기 체형에 잘 맞는 일자 바지를 선택하는 걸 추천한다. 뽀뽀한 소재의 데님 셔츠도 체형을 보정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부드럽게 몸을 감싸는 소재의 셔츠는 마른 체형을 보정하기 힘들다. 마른 체형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데님 소재 셔츠에 상의보다 어두운 색상 청바지, 면바지 등을 매치하면 센스 있게 풍성해 보이는 체형을 만들 수 있다. 🌊



완벽한 몸매를 위해

이것만 기억하자

상체비만인 당신

하체비만인 당신

남성이라면

- + 몸에 자연스럽게 맞는 옷을 선택한다. 너무 큰 옷이나 꼭 맞는 옷은 오히려 통통한 상체를 부각한다. 라인이 들어간 셔츠나 재킷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 + 스트라이프를 적극 활용한다. 세로줄 무늬 스트라이프 셔츠나 니트, 재킷 등은 날씬해 보이는 체형을 만든다.

여성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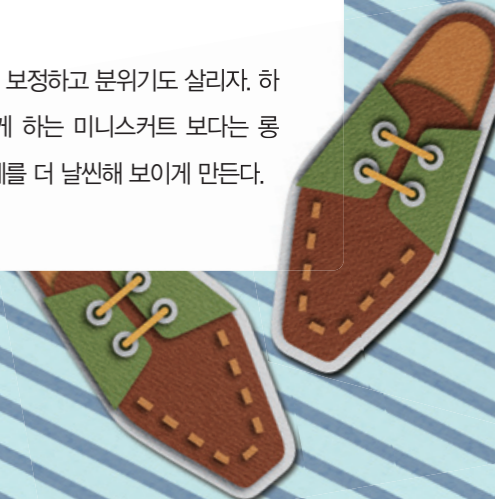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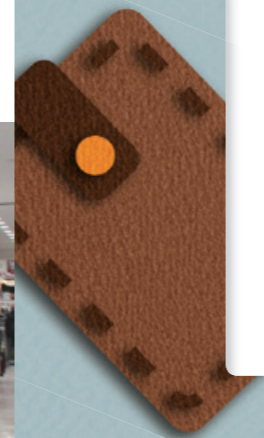
- + 목을 가리는 옷을 피한다. 상체가 통통한 편이라면 목선이 드러나는 라운드 셔츠나 브이넥 블라우스를 선택하자. 시선을 분산해 통통한 상체를 가려준다.
- + 화려한 프린트 스커트를 입어 하체로 시선을 분산 시킨다. 이때 어두운 계열의 상의와 화려한 스커트를 매치하면 차분하면서도 센스 있는 스타일링을 선보일 수 있다.

남성이라면

- + 상체는 밝게, 하체는 어둡게. 어두운 색 바지는 하체를 날씬해 보이게 한다. 이때 밝은 색 상의를 매치해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놓치지 말자.
- + 배기팬츠로 통통한 하체를 가리고 스타일을 살린다. 배기팬츠를 선택할 때는 과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단정한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여성이라면

- + 유행은 들고 돈다. 다시 돌아온 와이드 팬츠로 통통한 하체를 가린다. 와이드 팬츠는 하체 중 가장 날씬한 부분인 발목을 살짝 드러내는 길이를 선택하자.
- + 롱스커트로 체형도 보정하고 분위기도 살리자. 하체를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미니스커트 보다는 롱스커트가 통통한 하체를 더 날씬해 보이게 만든다.



건조한 겨울철 사무실 수분충전 하세요~

PHOTO TOON은 직원 여러분이 직접 출연해 직장 생활의 애환과 에피소드를 사보제작팀에서 재미있게 각색해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일상에서 겪은 에피소드와 경험 등을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전달해주세요. 에피소드로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호 포토툰에는 계룡산업 관리부 이선영 사원, 박지훈 사원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계룡장학재단, 2016년 4/4분기(제96회) 장학금 지급



이인구 계룡장학재단 이사장(계룡건설 명예회장)은 지난해 11월 30일 67명의 고등학생에게 2016년도 4/4분기 장학금 2천8백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한 장학금은 2016년도 전체 장학금 1억7천여만 원 중 일반장학금 제4회분으로 온라인으로 송금 지급

됐으며, 1992년 12월 재단 설립 이래 이번 회까지 지급된 장학금의 총 규모는 연인원 13,964명 장학금 53억여 원에 달한다.

계룡건설, 2017년 부서별 안전 및 수주지원제 실시



계룡건설은 2017년 새해를 맞아 각 부분별로 올 한 해 계룡건설의 안전과 수주를 기원하는 안전 및 수주지원제를 실시했다. 지난 1월 1일 관리본부 임직원들은 계족산 봉황정에 올라 계룡건설의 안전을 기원했다. 개발본부와 영업본부 또한 지난 1월 7일 각각 구룡산, 칠갑산에서 계룡건설의 발전과 수주를 기원했다. 한편, 건축본부와 토목본부는 지난 1월 14일 계룡산에서 올 한 해 무사고와 수주를 기원했다.

계룡건설, 2017년 시무식 실시

계룡건설은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하며 지난 1월 2일 9시, 본사 강당에서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인구 계룡그룹 명예회장을 비롯한 본사 임직원, 현장 소장, 계열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시무



식에서 이인구 명예회장은 “전 직원이 뜻을 모아 전년도 실적을 넘어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올 한 해도 무사고 무재해를 달성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계룡건설, 관리감독자교육 실시

계룡건설이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했다. 외부 안전 전문 강사를 초빙한 이번 교육은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건설 재해 예방하기, 휴먼에러 예방을 위한 BBS 기반 안전심리, 건설안전법 법령 알기 등으로 진행됐다.

계룡건설, 2017년 발전기원제 실시

계룡건설은 지난 2월 4일 계룡산 신원사에서 2017년 한 해 계룡건



설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발전기원제를 실시했다. 한승구 계룡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50여 명은 함께 연천봉에 올라 정상에서 발전기원제를 지내며 올 한 해 수주 확대, 무사고 안전, 회사 발전 및 매출 증대 등을 기원했다.

계룡장학재단, 2017년도 정기이사회 개최

계룡장학재단(이사장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은 지난 2월 28일 2017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2016년 사업을 결산하고 2017년 전체 2억6천여만 원 규모의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인구 이사장은 “올해도 장학사업을 비롯한 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 공익문화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인재 양성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도록 장학재단이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KR산업, 임원·팀장 수주지원제 실시



2017년 새해를 맞아 KR산업은 지난 1월 21일 2017년(丁酉年) 사업 목표와 전사업장 무재해 달성을 기원하는 임원·팀장 수주지원제를 충주시 계명산(해발 775m)에서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40여 명의 임직원은 계명산에 올라, 2017년 올 한 해 수주·매출 목표 달성과 전사업장 무재해 달성을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했다.

KR산업, 수원 인계동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오픈



KR산업이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원 인계동 오피스텔이 지난 2월 10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 인계동 오피스텔은 연면적 15,162㎡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 207

세대 규모이며, 지난 1월 19일 모델하우스 품평회를 마치고, 2월 1일 착공했다. 수원 중심상권에 위치해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인계동 오피스텔 분양의 귀추가 주목된다.

KR산업, 2017년도 전직원 한마음교육 실시

KR산업은 지난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2차수로 나누어,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전직원 한마음교육을 실시했다. 한마음 교육은 CEO

특강과 경영전략실장의 '17년도 경영목표 및 비전2020 강의, 노동조합 소개의 시간, 각 팀의 팀워크와 단합을 거루는 직원간 화합과정, 화합과 친교의 시간, 속리산 한마음 산행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KR산업의 전직원 한마음교육은 다양한 현장과 직종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1박2일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KR인으로 하나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KR산업, 신입사원 입문교육 실시



KR산업은 2017년도 신입사원 채용에 따라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신입사

원은 건축직 11명, 토목직 7명, 관리직 8명, 설비직 1명, 안전직 1명 총 28명이며, 신입사원 입문교육은 CEO 및 임원특강과 부서업무 소개, 외부강사 특강, 사업장 견학, 장애우시설 봉사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신입직원들은 입문교육을 마치고 지난 2월 8일부로 각부서 및 현장에 배치됐다.

KR산업, 입장(상), 인삼랜드(상), 흥성(상·하) 휴게소 국민평가 최우수등급휴게소 선정

한국도로공사의 2016 휴게소 국민평가 결과, KR산업이 운영하는 입장(상)·인삼랜드(상)·흥성(상·하)휴게소가 최우수등급 휴게소로 선정됐다. 입장(상), 인삼랜드(상), 흥성(상)휴게소는 작년 최우수등급 선정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등급을 받았으며, 흥성, 건천, 경주, 평창, 구정휴게소도 우수휴게소로 선정됐다. 이번 국민평가 결과는 2016년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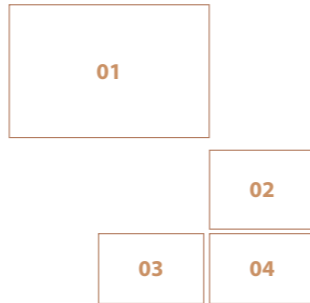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룡가족은 누구에게 힘을 얻을까요? 소중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



'최고의 사진'으로 선정된 분께는 패션아일랜드 10만 원 상품권 또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립니다. 또 응모해주신 모든 분께 패션아일랜드 1만 원 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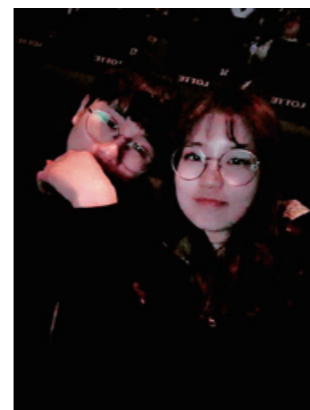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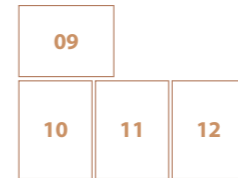
대상




- 01** 노은3지구 분양아파트 건설공사현장 임정근 주임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 02** 외주구매부 이상호 사원
파이팅 넘치는 입사 동기들과
- 03** 예당저수지 재해예방 물넘이 확장사업현장 김진교 사원
나의 에너지!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 04** 회계부 성재규 사원
한 번 동기는 영원한 동기. 입사할 때 가졌던 그 마음 오래도록 간직하길.



- 05** 기초과학연구원 본원1차 건립사업현장 김택수 사원
친구가 좀 맞자.
- 06**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공사현장 김지훈 사원
나에게 힘이 되는건 현장가족들이죠.
- 07** 행정중심복합도시 2-2M 2BL 아파트건설현장 김문겸 사원
친구 아이가.
- 08** 예당저수지 재해예방 물넘이 확장사업현장 주믿음 사원
부전자전, 르브루박물관에서 아버지의 청춘, 나의 청춘.



- 09** 새만금지구 농업생명용지 4공구 조성공사현장 박수봉 주임
세상에서 힘이 되는 건 가족이죠.
- 10** 수원 성빈센트병원 증축현장 소재현 사원
우리 제법 잘 어울리죠.
- 11** 세종시 2-1생활권 P3 공동주택 신축사업현장 최은석 사원
나의 동반자
- 12** 총무부 김용규 사원
나에게 힘이 되는 여친



겨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눈이 쌓인 나뭇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봄이면 모습을 드러낼 작은 어린잎을,
아직 꽃망울도 나오지 않은 어린 꽃을 떠올려 봅니다.

계룡가장